

영재학생의 시험선발과 자동진급방법에 따른 영재학생의 학업정서, 메타인지능력,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정진숙 · 최선영^{1*}

평택성동초등학교 · ¹경인교육대학교

A Study on Gifted Students Academic Emotion, Metacognition, Self-Efficacy According to Gifted Students Selection Methods between the examination selection and the automatic promotion

Jin Sook Jeong · Sun Young Choi^{1*}

Pyeongtaek Seongdong Elementary School · ¹Gyoe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election methods of gifted students. This study focuses on the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gifted students in accordance with the selection methods, i.e. the examination selection and automatic promotion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academic emotion, meta-cognition, and self-efficacy between gifted students selected according to the selection methods. Moreover, for the purpose of the effective gifted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arrange a reasonable basis for the discrimination and selection of gifted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gifted students selected by an examination and promoted automatically in view of academic emotion, meta-cognition, and self-efficacy of gifted students. It is determine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effects of selection methods under the condition of the same group of gifted students. Second, regarding the academic emotion of gifted students,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both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in case of examination selection. However, in case of the automatic promotion, the academic emotion of gifted students promoted automatically in the gifted education center was higher than that of the gifted students in the gifted class ($p < .05$). Regarding the meta-cognitive skill,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elementary school between the selection methods. In case of the examination selection in the middle school, the meta-cognitive skill of male students of the gifted education center was higher than that of the female and gifted class students ($p < .05$). In case of the automatic promotion in the middle school, the meta-cognitive skill of students of the gifted education center was higher than that of students of the gifted class ($p < .05$). As for the case of self-efficacy,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the selection methods. In the automatic promotion, self-efficacy of students of the gifted education center was higher than that of students of the gifted class ($p < .05$).

Keywords : examination selection, automatic promotion, academic emotion, metacognition, self-efficac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영재들의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도 일반 학생들

과 마찬가지로 영재 학생의 특성이 발휘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만 비로소 발현될 수 있다 (VanTassel-Baska, 1998). 교육을 통해 영재들의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영재교육의 목적에 맞는 영재교육대상자의 판별 및

*교신저자: 최선영 (sychoi@ginue.ac.kr)

**2015년 6월 10일 접수, 2015년 8월 10일 수정원고 접수, 2015년 8월 20일 채택

선발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영재교육기관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대체로 영재성검사와 면접고사 위주의 검사 중심의 다단계 전형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당시 영재 판별 도구의 미비함과 비합리적인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하만중, 2005).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2009)는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의 교육대상자 선발 방법을 종전의 시험 선발방법에서 교사에 의한 관찰 및 추천방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시험을 치루지 않고 교사의 장기 관찰과 이를 토대로 한 추천에 의해 선발이 실시되었다. 동료 추천의 경우 다른 영재 판별 도구를 비교했을 때 교사 추천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지능이 높다고 추천한 아동은 실제로 지능이 뛰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전연진, 2011). 그러나 영재교육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의 환경에서 영재교육은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각 가정의 사교육비 증가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관찰·추천에 의한 선발 방법과 무시험 전형 형태인 자동 진급 제도이다. 하지만 자동 진급 영재교육대상자 수의 비율 확대 또는 전원 자동 진급 전환으로 인해 영재교육에 대한 학습동기 저하 및 학습에 대한 불성실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하였다.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험 선발 방법, 교사에 의한 관찰 및 추천 선발 방법, 자동진급의 무시험 선발 방법 등이 병행되어 시행되고 있다. 영재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선발 방법에 따라 선발된 영재교육대상자의 우수한 점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안정적으로 학습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학업 정서가 다른 선발 방법에 따라 선발된 영재학생들 간의 학업 정서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학업 정서는 학생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성취해 나가는 원동력으로 바로 학습 목표로 연결이 되어 성적과 성취도가 높아지고 추후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은애, 2013). 높은 성취와 추후 학습과의 연계를 고려해 볼 때 정적 학업 정서가

높은 집단을 선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영재교육을 위한 발판이 되리라 판단된다. 그리고 영재교육의 학습 내용은 일반 학교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심화된 또는 상위 수준의 학습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 학문적성검사로 선발 기준을 마련할 때의 영재교육대상자들은 선행학습과 속진학습의 경험이 많은 학생들로 지적 수준이 높았다. 그에 반면 영재교육의 확산으로 영재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조차 어려운 학생들이 선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월성 교육이라는 목적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메타인지능력이 높은 집단을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영재수업은 일반 학교 및 학원 수업과는 다르게 지식의 전달·습득보다는 지식의 발견·재창조에 중점을 두고 진행이 되며 매시간 조사·발표·실험·조작·산출물 제작 등 다양한 활동 수행을 요구로 한다. 이에 영재학생들은 바람직한 효과를 산출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 즉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활동 수행에 있어서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영재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는 개인의 자기효능감에서 시작된다. 그렇기에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선발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점차 영재교육대상자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일방적인 선발비율의 고정 등과 같은 획일화된 선발 방법이 아닌 학교급별·성별·영재교육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다변화된 선발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방법 즉, 시험 선발과 자동 진급에 따라 선발된 영재학생간의 학업정서, 메타인지,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학교급별·성별·영재교육기관별로 세분화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선발 방법에 따른 영재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영재교육을 위한 영재교육대상자 판별 및 선발에 있어서의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2. 연구의 제한

본 연구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4개의 교육지원청 부설영재교육원 및 동일지역 영재학급 초등학교 6

학년과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환경이나 생활환경의 영향을 받으므로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지역 2014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동일 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영재학생을 영재성 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최종 선발된 시험 선발 영재학생집단과 자동 진급 영재학생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교육기관별 영재학생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A, B, C, D 동일지역의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을 각각 초등학교 6학년 1학급, 중학교 2학년 1학급씩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 1).

A, B, C, D 지역의 영재교육대상자 인원 분포를

분석하여 보면, 영재교육원의 초등학교, 중학교 인원수는 정원인 20명을 다 채운데 반하여 영재학급의 경우 초등학교는 20명으로 정원을 충족하였으나, 중학교 경우 20명 정원을 채운 학급은 1개이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15~17명까지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였다. 이는 입시와 상급학교의 진학 등과 관련해 사설학원 수강 및 방과 후에 실시하는 영재교육 참여에 대한 부담감으로 해석되며 일부지역의 경우 영재교육 희망자가 낮은 관계로 전년도 영재교육대상자를 전원 자동 진급 대상자로 선발하기도 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총 학생 수는 304명(남학생: 208명, 여학생: 96명)이었으나, 검사 문항 가운데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는 학생 48명은 제외하고, 시험 선발된 영재교육대상자 159명과 자동 진급된 영재교육대상자 97명 총 256명의 응답 내용만을 결과 분석에 이용하였다(표 2).

2. 연구 대상 학생들의 자동 진급 선발 과정 비교

표 1. 연구 대상자의 전체 분포

구 분	A지역		B지역		C지역		D지역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영재 교육원	초6	14	6	15	5	14	6	12	8	80
	중2	14	4	14	6	11	7	16	4	76
영재 학급	초6	12	8	16	4	12	8	11	9	80
	중2	12	3	8	9	10	6	12	8	68
계		52	21	53	24	47	27	51	29	304

표 2. 선발 방법에 따른 영재학생의 최종 연구대상자 분포

구 분	시험 선발 영재학생 수					소계	자동 진급 영재학생 수				소계
	A	B	C	D	A		B	C	D		
영재 교육원	초6	6	7	18	7	38	10	10	0	10	30
	중2	13	11	18	10	52	6	5	0	5	16
영재 학급	초6	7	0	14	11	32	10	20	0	0	30
	중2	4	6	14	13	37	9	6	0	6	21
계		30	24	64	41	159	35	41	0	21	97

표 3. 교육지원청부설 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의 자동 진급 비교

지역	자동 진급의 선발 내용
A	■ 자동 진급은 영재교육원 우수학생 각 학년별 50%내로 자동 진급 대상자 선발
B	■ 초5~6학년반, 중2학년반은 2013학년도 영재교육이수자 자동 진급(50%)
C	■ 2014학년도 관찰 . 추천 선발제도의 적용으로 기존의 무시험 전형 폐지
D	■ 초등학교 6학년 10(10), 중학교 2학년 10(10)명시 : ()안은 자동 진급 인원 수

경기도에 있는 지역별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이나 영재학급 학생의 선발은 2014 경기 과학영재 기본 계획과 2014 경기 영재교육 실무편람(경기도교육청, 2014)에 제시된 교사 관찰.추천 선발 방법에 따라 다단계별 선발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기본 방침을 근거로 하여 지역별, 학교별 특성이 반영된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의 선발기준이 조금씩 다르기에 해당 영재교육기관별로 선발 과정을 각각 분석하였다.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중 자동 진급을 비교한 것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A지역과 B지역, D지역의 영재교육원은 자동 진급 대상자를 50%로 규정하고 있어 시험 선발과 자동 진급된 영재교육대상자가 1:1의 비율이다. C지역은 차기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전원을 교사에 의한 관찰.추천 선발 방법, 즉 시험 선발로 100% 영재교육대상자를 구성하였다.

지역별 초, 중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

발 중 자동 진급을 비교한 것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A지역의 초등학교 영재학급은 무시험 선발 대상이 30%로 중학교에 비해 적은 인원이다. 이것은 이 초등학교의 경우 학구가 좋은 편이고 영재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수가 많아 영재교육의 기회 확대를 위해 시험 선발 인원을 70%로 책정하였다. 중학교 영재학급은 자동 진급 대상이 50%이나 실제 2014학년도 영재학생 선발에 있어 2013학년도 영재학급 학생 전원을 자동 진급하여 운영하였다. B지역의 초등학교 영재학급은 영재교육의 연계성을 위해 전원 자동 진급으로 학생을 선발하였다. 중학교 영재학급은 영재교육의 연계성을 위해 전원 자동 진급을 하였고 일부만 충원하여 선발하였다. C지역의 초등학교 영재학급의 경우 무시험 전형을 폐지하여 전원 시험 선발로 인원을 선발하였다.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무시험 전형을 폐지하여 전원 시험 선발로 인원을 선발하였다. D지역의 초등학교 영재학급은 시험 선발 100%(영재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표 4. 지역별 초, 중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의 자동 진급 비교

지역	자동 진급의 선발 내용	
	초등학교	중학교
A	■ 자동 진급 대상자는 총 6명 (2013학년도 영재학급 5학년 학생 중 우수학생 30%내외)	■ 자동 진급 대상자는 총10명으로 2013학년도 영재학급 우수학생 50%내외
B	■ 자동 진급 대상자는 총 20명.(2013학년도 영재학급 5학년 수료 학생 전원 무시험 선발)	■ 중 2학년반은 2013학년도 영재교육이수자 13명 자동 진급하고 결원만 선발함.
C	■ 2014학년도 관찰 . 추천 선발제도의 적용으로 기존의 무시험 전형 폐지	■ 2014학년도 관찰 . 추천 선발제도의 적용으로 기존의 무시험 전형 폐지
D	■ 20명으로 자동 진급 대상자 0명으로 전원 시험 선발	■ 자동 진급 대상자는 총10명(2013학년도 영재학급 우수학생 50%내외)

이 많은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자동 진급 대상자를 50%로 규정하고 있어 시험 선발과 자동 진급된 영재교육대상자가 1:1의 비율이다.

3. 검사 도구

가. 학업정서 검사지

학업정서는 학습자들이 학업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를 말한다. 학습과정에서 동기나 인지 작용에 원동력을 제공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며 동기적 상태를 유지하는데 일조한다(김은진, 2013). 영재학생의 학업정서를 알아보기 위해 양명희, 김은진(2010)의 도구를 김은진(2013)이 수정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재미, 자부심, 뿌듯함, 성취감, 흥미, 즐거움, 만족감, 희망의 정적인 정서 8개 항목과 불안감, 창피함, 지루함, 우울함, 압박감, 화남, 답답함, 귀찮음, 짜증의 9개 부정적 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재학생이 영재학급 수업 상황과 일반학급의 수업 상황에서 지각하거나 반응하는 정서를 각각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검사지는 총 17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896이었다.

나. 메타인지능력 검사지

메타인지능력은 자신의 인지활동의 과정과 결과, 또는 이 둘과 관련된 모든 것, 즉 주어진 자료나 정보의 학습에 관여하는 인식체계이다(최정인, 2010). 영재학생의 메타인지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명희(2000)의 자기조절학습 측정도구 중 '메타인지 전략의 사용' 측정 문항, Printrich와 DeGroot(1990)의 학습동기화 전략에 대한 질문지(MSLQ) 중 메타인지 전략 측정 문항, Schraw와 Dennison(1994)이 개발한 메타인지 측정도구(MAI)를 수정, 보완한 후 재구성하여 최정인(2010)이 만들어 사용한 검사지를 활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총 3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문항은 Likert 5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953 였다.

다. 자기효능감 검사지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제어하고 발휘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개인적 신념이며, 자신의 유능함 즉 어떤 행동에 대한 성공적 수행에 대한 자신의 능력과 관련된 자신의 감정을 의미한다(이미경, 2004). 영재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김아영, 차정은(1996)의 도구를 김아영(1997)이 수정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총 2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자기효능감은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 과제난이도 선호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신감이란 자신의 능력에 관한 개인의 신념 또는 확신의 정도이며 자신의 능력에 관한 인지적 판단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표현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자기조절 효능감은 개인이 특정 과제를 이루고자 할 때의 자기조절, 즉 자기 판단과 자기 관찰, 자기 반응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효능기대를 의미하며 과제 난이도 선호는 개인이 특정 수행상황에 마주했을 때 목표를 택하고 정할 때 특정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하는 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각각의 문항은 Likert 5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신뢰도(Cronbach's α)는 .868 였다.

4. 자료의 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영재학생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영재 선발 방법에 따라 선발된 영재학생의 학업정서의 차이 분석

시험 선발된 영재학생과 자동 진급된 영재학생의 학업 정서 전체와 세부 변인인 학교급별, 성별, 교육기관별 영재 선발 방법에 따른 학업 정서 비교에

표 5. 학교급별, 성별, 교육기관별 영재 선발 방법에 따른 학업정서 비교 분석

학교급	선발방법	N	M(SD)	t	p		
초등	전체	시험선발	70	2.78(.40)	-.011	.991	
		자동진급	60	2.78(.45)			
	성별	남학생	시험선발	44	2.75(.38)	.180	.858
			자동진급	35	2.74(.44)		
		여학생	시험선발	26	2.83(.44)	-.136	.662
			자동진급	25	2.84(.46)		
	교육기관별	영재	시험선발	44	2.85(.43)	.480	.633
			교육원	27	2.80(.37)		
		영재학급	시험선발	26	2.67(.34)	-.830	.410
			자동진급	33	2.77(.51)		
중등	전체	시험선발	89	2.67(.40)	.677	.500	
		자동진급	37	2.62(.42)			
	성별	남학생	시험선발	54	2.71(.37)	.973	.333
			자동진급	32	2.62(.44)		
		여학생	시험선발	35	2.62(.44)	.000	1.000
			자동진급	5	2.63(.28)		
	교육기관별	영재	시험선발	46	2.72(.38)	-.394	.695
			교육원	19	2.76(.35)		
		영재학급	시험선발	43	2.62(.41)	1.282	.205
			자동진급	18	2.47(.44)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5). 이는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시험 선발 방법과 자동 진급(무시험) 방법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제도 즉, 자동 진급을 통해 영재교육의 연속성과 시험 선발을 통해 영재교육의 수혜자 확산을 통해 우수 영재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영재학생 선발 방법에 따른 학생의 학업정서를 성별, 교육기관별로 분석하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중학교의 경우 자동 진급된 영재교육원의 영재학생과 영재학급의 영재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이현규 (2014)는 영재교육원 영재학생이 영재학급의 영재학생보다 수학적 학습 태도 즉, 우월감, 자신감, 흥미에서 높은 긍정적인 대답이 나온 결과와 일치한다. 자동 진급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 중 30%~50% 제한되어 있어 자동진급 대상자로 선정된 영재학생에게 영재학습에 대

한 동기 부여 뿐만 아니라 자부심, 성취감 등을 유발시킨다. 아울러, 영재교육원의 경우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별로 선발과 관련된 장소 및 교사 섭외, 그에 따른 수당 지급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학교별로 1~3명 이내로 추천 제한을 두기에 시험 응시의 기회도 적고 각 학교의 우수학습자가 응시한다는 학생들의 인식이 작용하여 선발 자체만으로도 영재학생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2. 영재 선발 방법에 따라 선발된 영재학생의 메타인지능력 차이 분석

시험 선발된 영재학생과 자동 진급된 영재학생의 메타인지능력 전체와 세부 변인인 학교급별, 성별, 교육기관별 영재 선발 방법에 따른 메타인지능력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표 7). 이는 선발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는 자격 요건 즉 학

표 6. 동일한 영재 선발 방법에 따른 성별, 교육기관별 학업정서 비교 분석

선발방법			N	M(SD)	t	p	
시험 선발	초등	성별	남	44	2.75(.38)	-.741	.461
			여	26	2.82(.44)		
	교육기관별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원	44	2.85(.43)	1.764	.082
			영재학급	26	2.67(.34)		
	중등	성별	남	54	2.71(.37)	.935	.353
			여	35	2.62(.44)		
교육기관별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원	46	2.72(.38)	1.200	.233	
		영재학급	43	2.62(.41)			
자동 진급	초등	성별	남	35	2.74(.44)	-.913	.365
			여	25	2.84(.46)		
	교육기관별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원	27	2.80(.37)	.243	.809
			영재학급	33	2.78(.51)		
	중등	성별	남	32	2.62(.44)	-.027	.979
			여	5	2.63(.28)		
교육기관별	영재교육원	영재교육원	19	2.76(.35)	2.227	.032*	
		영재학급	18	2.47(.44)			

*p < .05

표 7. 학교급별, 성별, 교육기관별 영재 선발 방법에 따른 메타인지능력 비교 분석

학교급		선발방법	N	M(SD)	t	p	
초등	전체	시험선발	70	4.05(.51)	.373	.709	
		자동진급	60	4.01(.58)			
	성별	남학생	시험선발	44	4.12(.48)	1.312	.194
			자동진급	35	3.97(.55)		
	여학생	시험선발	26	3.93(.52)	-.918	.363	
		자동진급	25	4.08(.63)			
교육기관별	영재 교육원	시험선발	44	4.04(.49)	-.722	.473	
		자동진급	27	4.13(.51)			
	영재학급	시험선발	26	4.06(.53)	.924	.360	
		자동진급	33	3.92(.63)			
중등	전체	시험선발	89	3.85(.62)	1.129	.261	
		자동진급	37	3.71(.70)			
	성별	남학생	시험선발	54	3.69(.59)	.308	.759
			자동진급	32	3.64(.67)		
	여학생	시험선발	35	4.11(.58)	-.109	.914	
		자동진급	5	4.14(.79)			
	교육기관별	영재 교육원	시험선발	46	3.99(.67)	.246	.806
			자동진급	19	3.94(.79)		
		영재학급	시험선발	43	3.71(.53)	1.639	.107
			자동진급	18	3.47(.50)		

표 8. 동일한 영재 선발 방법에 따른 성별, 교육기관별 메타인지능력 비교 분석

선발방법		N	M(SD)	t	p	
시험 선발	초등	성별 - 남	44	4.12(.49)	1.561	.123
		성별 - 여	26	3.92(.53)		
	교육기관별	영재교육원	44	4.04(.49)	-.142	.888
		영재학급	26	4.06(.54)		
	중등	성별 - 남	54	3.68(.59)	-.3334	.001**
		성별 - 여	35	4.11(.58)		
교육기관별	영재교육원	46	3.99(.67)	2.612	.033*	
	영재학급	43	3.71(.53)			
자동 진급	초등	성별 - 남	35	3.97(.55)	-.709	.481
		성별 - 여	25	4.08(.63)		
	교육기관별	영재교육원	27	4.13(.51)	1.425	.160
		영재학급	33	3.92(.63)		
	중등	성별 - 남	32	3.64(.67)	-1.505	.141
		성별 - 여	5	4.14(.79)		
교육기관별	영재교육원	19	3.94(.79)	2.142	.039*	
	영재학급	18	3.47(.50)			

**p < .01, *p < .05

업 성적 우수자이거나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은 학생이기에 영재 선발 방법에 따른 메타인지능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영재학생 선발 방법에 따른 학생의 메타인지 능력을 성별, 교육기관별로 분석하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시험 선발된 중학교의 경우 여학생과 남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메타인지능력을 보인다는 박영태, 한정숙(1997)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이른 연령에 언어를 습득하고,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어휘, 독해, 언어 유창성에서도 남아에 비해 우위를 보인다는 발달적 관점(문혁준 등, 2010)을 입증하는 결과이다(유소라, 2012, 재인용). 중학교의 경우 시험 선발과 자동진급된 영재교육원의 영재학생과 영재학급의 영재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이는 이정운(2013)이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 간의 학습전략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차이의 결과는 기관별 영재 선발의 제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학교의 영재학급 학생의 경우 선발 대상

자의 영재적 특성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선발을 하기 보다는 단지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들이 선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영재를 선발하기 위한 적합한 선발 도구와 전문적 역량을 갖춘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라서 영재교육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은 학생이 선발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영재교육원 학생들은 여러 단계의 선발 절차를 거치고, 타당도를 갖춘 영재 선발도구를 사용하여 전문적 역량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선발이 되므로 적합한 영재교육 대상자가 선발이 된다. 또한, 영재교육의 수익자 부담으로 전환 운영으로 인한 경제적 이유와 방과 후 개인적 사정(학원 수강 등)으로 우수 학생이 영재학급에 참여하지 않는 점도 있다.

3. 영재 선발 방법에 따라 선발된 영재학생의 자기효능감 차이 분석

시험 선발된 영재학생과 자동 진급된 영재학생의 자기효능감 전체와 세부 변인인 학교급별, 성별, 교육기관별 영재 선발 방법에 따른 자기효능감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9). 이는 선발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영재 교육대상자로 선발되었다는 영재 학생들의 자기만족도와 자긍심이 높기에 자신감이 향상되고 영재교육대상자가 되기 위한 과제 수행 정도 및 시간 관리 면에서 일반학생에 비해 뛰어나며 다소 자기 과시적인 과제를 선택하여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려는 경향이 있어 영재 선발 방법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학교의 경우 영재교육원 학생 중 시험 선발된 영재학생과 자동진급된 영재학생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이는 영재교육원의 영재학생은 해당지역의 교육기관에서 제한적 인원을 추천하고 다시 추천된 인원을 대상으로 여러 단계의 시험을 통해 선발되기에 학생에게 높은 자기효능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된다. 그런 영재교육원의 영재학생 중에서도 자동진급된 영재학생은 1년 동안의

학업 성취도, 과제 수행도 등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외부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근거를 두어 영재교육원의 자동진급된 영재학생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생각된다.

동일한 영재학생 선발 방법에 따른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성별, 교육기관별로 분석하면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자동진급된 중학교의 영재교육원 영재학생과 영재학급 영재학생 간의 자기효능감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5$). 이와 같은 결과는 이정운(2013)의 초등학교 일반학급,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학생의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학습전략의 비교연구에서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 간의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영재교육원은 각 학교에서 추천받은 우수한 학생 가운데 선발이 되는 것이며 자동진급의 경우는 그런 학생들 가운데 1

표 9. 학교급별, 성별, 교육기관별 영재 선발 방법에 따른 자기효능감 비교 분석

학교급	선발방법	N	M(SD)	t	p		
초등	전체	시험선발	70	3.22(.28)	.400	.690	
		자동진급	60	3.20(.34)			
	성별	남학생	시험선발	44	2.75(.38)	.180	.858
			자동진급	35	2.74(.44)		
		여학생	시험선발	26	3.15(.24)		
			자동진급	25	3.25(.40)		
	교육기관별	영재교육원	시험선발	44	3.22(.26)	-.818	.416
			자동진급	27	3.28(.36)		
		영재학급	시험선발	26	3.22(.33)		
			자동진급	33	3.13(.31)		
중등	전체	시험선발	89	3.16(.20)	-.848	.397	
		자동진급	37	3.25(.34)			
	성별	남학생	시험선발	54	3.18(.22)	-1.459	.148
			자동진급	32	3.26(.30)		
		여학생	시험선발	35	3.14(.18)		
			자동진급	5	3.18(.16)		
	교육기관별	영재교육원	시험선발	46	3.17(.23)	-.2565	.013*
			자동진급	19	3.35(.33)		
		영재학급	시험선발	43	3.16(.18)		
			자동진급	18	3.14(.18)		

* $p < .05$

표 10. 동일한 영재 선발 방법에 따른 성별, 교육기관별 자기효능감 비교 분석

선발방법			N	M(SD)	t	p	
시험 선발	초등	성별	남	44	3.26(.30)	1.601	.114
		성별	여	26	3.15(.24)		
	교육기관별	영재교육원	44	3.22(.26)	-.064	.949	
		영재학급	26	3.22(.33)			
	중등	성별	남	54	3.18(.22)	.898	.372
		성별	여	35	3.19(.18)		
교육기관별	영재교육원	46	3.17(.23)	.305	.761		
	영재학급	43	3.16(.18)				
자동 진급	초등	성별	남	35	3.17(.30)	-.874	.386
		성별	여	25	3.25(.40)		
	교육기관별	영재교육원	27	3.28(.36)	1.690	.096	
		영재학급	33	3.13(.31)			
	중등	성별	남	32	3.27(.30)	.563	.577
		성별	여	5	3.18(.16)		
교육기관별	영재교육원	19	3.35(.33)	2.415	.021*		
	영재학급	18	3.14(.18)				

* $p < .05$

년 동안 성실히 영재교육을 수행하였다는 결과이기
에 높은 자기효능감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
었다고 판단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방법 즉,
시험 선발과 자동 진급에 따라 선발된 영재학생간
의 학업정서, 메타인지,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학교
급별·성별·교육기관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선발
방법에 따른 영재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
인 영재교육을 위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의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선발 방식의 차이에 따른 분석에서,
중등의 영재교육원에서의 자동진급학생이 시험 선
발 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p < .05$)외엔 전
체적으로 시험 선발과 자동 진급 영재학생들 간의
학업 정서, 메타인지능력, 자기효능감 사이에는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일한 선발된 방법에 따른 비교에서, 영
재학생의 학업정서를 살펴보면, 시험선발의 경우
초등과 중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
동진급에서는 중등의 영재교육기관별 분석에서 영
재교육원 학생이 영재학급 학생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p < .05$). 메타인지분석에서 있어서는 초등
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중등의 경우 시험선발에
서 남학생이, 영재교육원 학생이 높았고($p < .05$), 자
동진급에서는 영재교육원 학생이 높았음을 알았다
($p < .05$). 또한 자기효능감에서는 선발 방식에 따라
차이가 없었고 단지 자동진급에서 영재교육원 학생
이 영재학급학생보다 높았음을 알았다($p < .05$).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현행 이루어지고 시험 선
발의 방법과 자동 진급(무시험) 방법에 있어 큰 차
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두 가지 선발
방법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영재교육의 수월성을 확
보하는 방안에 대한 강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영재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시험
선발된 영재학생과 자동 진급된 영재학생들의 영재
적 특성을 규정지을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 자동 진급 대상자 및 인원 수

선정에 있어 발생된 학부모 민원과 자동 진급 영재 학생의 영재 수업에 대한 불성실, 영재교육에 대한 학습 동기 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재 판별 및 선발 방법에 있어 타당하고 객관적인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영재교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아영 (1997). 학구적 실패에 대한 내성의 관련 변인 연구. *교육심리연구*, 11(2), 1-19.
- 김아영, 차정은 (1996). 자기효능감과 측정.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51-64.
- 김은진 (2013). 학업상황의 정서조절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와 학습전략을 매개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애 (2013). 정서지능과 학업정서의 관계구조.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아, 정옥분, 정순화 (2007). 아동의 내적 동기 및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의 관계 : 성별과 연령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학회지*, 38(2), 23-47.
- 양명희 (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명희, 김은진 (2010). 정서조절이 학습전략에 미치는 영향: 정서를 매개로 하는 관계 검증. *교육심리연구*, 24(2), 449-467.
- 유소라 (2012). 초중학생의 메타인지능력과 어머니의 학습관여가 자기주도적학습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점형 (2013). 정서지능, 학급풍토 및 사회적 지지가 교우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운 (2013). 초등학교 일반학급,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학생의 학습동기 자기효능감 및 학습전략의 비교.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민 (2012). 영재 선발방법에 따른 과학영재들의 탐구능력, 과학적 태도, 과학학습 동기에 관한 연구.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규 (2014). 영재교육프로그램의 장기적인 적용이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일반학급 학생의 수학적 학습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낙한, 유진우, 류해일 (2006). 우리나라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영재학생 선발과정에 대한 비교 분석. *영재교육연구*, 16(2), 101-122.
- 전연진 (2011). 초등영재 판별방법으로서 동료추천의 효용성 탐색.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승우, 김아영 (1997). 초등학교 아동의 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전략 사용 및 자기효능감과 관계. *교육과학연구학회지*, 27, 71-88.
- 최정은 (2011). 중학교 수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효능감 비교분석.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인 (2010). 중학생의 과학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과 메타인지와의 상관관계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만종 (2005). 영재 판별의 쟁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함의.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Pintrich, P. R., & De Groot, E. V. (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2, 33-40.
- Schraw, G., & Dennison, R.S.(1994). Assessing metacognitive awarenes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9(4), 460-475.
- VanTassel-Baska, J., Bass, G., Reis, R., Poland, D., & Avery, L. D.(1998). A national study of science curriculum effectiveness with high ability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42(4), 200-211.

국 문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영재교육대상자의 선발 방법이다. 즉, 시험 선발과 자동 진급에 따라 선발된 영재학생간의 학업정서, 메타인지, 자기효능감을 차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선발 방법에 따른 영재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영재교육을 위한 영재교육대상자 판별 및 선발에 있어서의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선발방법에 따라 선발된 영재 학생간의 학업정서, 메타인지능력 및 자기효능감의 연구에서는 시험 선발 영재학생과 자동 진급 영재 학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영재라는 동질 집단 조건에서는 선발방법의 차이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동일한 선발된 방법에

따른 비교에서, 영재학생의 학업정서를 살펴보면, 시험선발의 경우 초등과 중등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동진급에서는 중등의 영재교육기관별 분석에서 영재교육원 학생이 영재학급 학생보다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p < .05$). 메타인지능력에서 있어서는 초등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중등의 경우 시험선발에서 남학생이, 영재교육원 학생이 높았고($p < .05$), 자동진급에서는 영재교육원 학생이 높았음을 알았다($p < .05$). 또한 자기효능감에서는 선발 방식에 따라 차이가 없었고 단지 자동진급에서 영재교육원 학생이 영재학급학생보다 높았음을 알았다($p < .05$).

주제어: 시험 선발, 자동 진급, 학업 정서, 메타 인지능력, 자기효능감